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케어 참여 쿠팡친구 영상 화제 “4주간 월급 걱정 없이 건강 챙겼다”

2021. 8. 4.

- **쿠팡케어로 4주만에 건강 되찾은 쿠팡친구 체험기 영상 화제**
- **업계 최초 유급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쿠팡케어’**
- **쿠팡케어 효과 입증,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도 도입**

2021. 8. 4. 서울 — 쿠팡케어를 수료한 쿠팡친구(이하 쿠친)의 생생한 체험기 영상이 게재돼 화제다.

지난 3일 쿠팡은 ‘쿠팡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 쿠팡케어 1기 쿠친의 체험기 영상을 공개했다. 쿠친이 4주간 쿠팡케어에 참여하는 모습과 인터뷰가 담긴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만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쿠팡이 의료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쿠팡케어’는 혈압 혈당 등 건강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송직원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배송 업무를 멈추고 건강관리에만 집중하도록 한 업계 최초 유급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체험기의 주인공인 박기범 쿠친은 4월 쿠팡케어 1기에 참여했다. 영상에는 그가 연예인 ‘김병만’을 롤모델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화된 운동과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이 소개됐다.

영상 속 인터뷰에서 그는 “쿠팡케어는 여러 쿠친들과 소통을 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인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했다”며 “4주간 월급을 받으며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쿠팡케어는 최고의 건강 증진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쿠팡케어 참여 이후 단백뇨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될 혈압이 개선됐다.

쿠팡에 따르면, 박기범 쿠친을 비롯한 쿠팡케어 1기 참가자 60%의 혈압 혈당 허리둘레 등 건강지표가 개선됐다. 복부 비만이었던 참가자의 44.6%가 4주만에 정상 허리둘레가 됐고, 고혈압 참가자 중 37.2%가 정상 혈압을 유지했다.

한편, 쿠팡은 주5일 근무와 연차휴가 15일 이상 보장, 본인 및 가족의 실손보험 가입, 여성 쿠친 케어센터와 핫라인 등 물류업계를 선도하는 직원 복지 제도들을 도입해왔다. 쿠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모두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친들의 건강지표가 개선되는 등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도 물류센터 직원에게 적합한 맞춤형 쿠팡케어를 도입했다”며 “쿠팡의 직고용 및 주5일제 근무와 더불어 쿠팡케어가 택배물류업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